

혼인 건수 12년 만에 증가 ... 외국인과 혼인 급증 덕

한국의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1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2023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전년인 2022년보다 2천 건, 1.0% 늘었다.

연간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하기는 2011년(+0.9%) 이후 무려 12년 만이다.

2012년부터 매년 감소를 거듭한 연간 혼인 건수는 2016년(28만 2천 건) 30만 건 선이 무너졌고,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이던 2021년(19만 3천 건)에는 20만 건 선마저 붕괴됐다. 이듬해인 2022년 더욱 줄어 19만 2천 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0%나마



▲ 작년 외국인과의 혼인 증가로 2023년 전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천 건이 늘었다. 사진=shutterstock

반등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20만 건대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통계청은 코로나 사태 종식으로 그간 미뤄졌던 혼인이 진행된 영향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외국인과 혼인이 늘어난 게 12년 만에 혼인 건수 증가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과 혼인은 2만 건으로 2022년 대비 3천 건, 18.3%나 증가했다.

외국인과 혼인 건수를 제외하면 지난해 한국인 간 혼인은 1천 건 감소했다.

통계청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은 상당 부분 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12년 만의 혼인 건수 증가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신청 최근 1년간 19만 명 육박



▲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금리와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최근 1년 동안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8만9259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14만6072건) 대비 29.6% 급증한 수치다.

채무조정 신청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경제 허리로 꼽는 40대가 5만3294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8.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50대(22.6%), 30대(22.2%), 60대 이상(14%), 20대 이하(12.3%) 순으로 집계됐다.

연체가 생긴 이유로는 '생계비 지출'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소득감소'와 '실직·폐업'이라고 응답한 신청자 비율도 높았다. 경기부진으로 빚내서 생활하다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채무조정에 나선 차주가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은행 등 금융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 조정 제도로 법원에서 받는 공적인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과 달리 금융권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체가 기간 3개월 이상으로 15억 원 이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액이 대출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경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아울러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32만 명 탈서울 ... "미친 집값" 때문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머니투데이'는 한국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경기도 27만9375명, 인천 4만5942명)이라고 전했다.

서울을 떠난 주된 이유는 주택 문제가 꼽힌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전입했다는 분석이다. 집값 부담은 줄이면서 보다 넓고 쾌적하게 살고 싶다는 수요가 '탈서울'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정비를 이용하여 다섯집을 내리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월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71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3068만4000원)과 비교하면 21.03% 오른 가격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률(10.95%)의 두배 수준이다. 반면 같은 시기 경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51만원, 인천은 1645만원 수준이다.

서울에 신축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해 경기, 인천 지역 분양 단지의 청약자 수는 총 36만8730명으로 전년(35만7934명) 대비 약 2.93%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청약자 수가 3.41%(112만2418명→108만5416명)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테메쿨라 한인 치과 오픈!

TOWN CENTER DENTAL

·타운 센터 덴탈· 무료상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진료

임플란트 / 신경치료 / 크라운 / 보철치료 / 틀니

ALL PPO, LIBERTY, ALL MEDI-CAL, DENTI-CAL, IEHP, MOLINA

T.951.693.9595

29700 Rancho California Rd. STE G5, Temecula, CA 92591
Mon - Wed, Fri. 9:00AM - 6:00PM

GRAND OPENING

임플란트
\$1,200
부터